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제 30 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보도자료

- 목차 -

I. 개요

II. 종합 결산

III. 사업별 결산

i.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ii. 포럼 비프

iii. 커뮤니티비프

iv. 동네방네비프

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IV. 시상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I. 개요

1. 기본 개요

- 개최 기간: 2025년 9월 17일(수) - 26일(금)
- 상영관: 7개 극장 31개 스크린
 -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 커뮤니티비프(메가박스 부산극장, 부산가톨릭센터 공간 101.1, 남포동 비프광장)
- 상영작: 328편
 - 공식 초청작 64개국 241편
 - 월드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99편
 - 월드 프리미어 90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9편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87편(야외상영 포함)

2. 총 관객 수: 238,697명

- 영화제: 162,405명
- 커뮤니티비프: 5,636명
- 동네방네비프: 7,848명
- 프로그램 이벤트 및 부대 행사: 62,808명

3. 프로그램 이벤트

- | | |
|--------------|---------------------|
| ○ 오픈 토크 13회 | ○ 야외무대인사 19회 |
| ○ 스페셜 토크 5회 | ○ 마스터 클래스 5회 |
| ○ 까르뜨 블랑슈 5회 | ○ 씨네 클래스 4회 |
| ○ 액터스 하우스 4회 | ○ 게스트와의 만남(GV) 323회 |
| ○ 아주담담 9회 | |



4.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30,006명(전시장 방문 22,122명 / 산업 이벤트(87개) 참가 7,884명)
- 마켓 배지: 54개국, 1,222개사, 3,024명
- 전시자: 31개국, 289개사, 113개 부스
 - 총 16개국 국가관(인도, 인도네시아 첫 국가관 개설)
 -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세일즈사 및 콘텐츠 기관으로 참가
 - 신규 참가 38개사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스크리닝: 총 18개국, 51개사, 179작품(마켓 프리미어 24편)
 - 영화제 공식 선정작: 총 97편
- 마켓콘퍼런스 및 이벤트: 총 87개 행사, 7,884명 참가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미팅 횟수: 총 726건, 총 127개 참가사
 - 부산스토리마켓 미팅 횟수: 총 703건, 총 145개 참가사
- 플랫폼부산 참가자: 23개국, 148명
- 프로듀서허브 참가자: 25개국, 154명

5.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총 참석인원 **7,036명**
 - 영화제 국내게스트 2,186명
 - 영화제 해외게스트 923명
 - 마켓 국내게스트 1,208명
 - 마켓 해외게스트 1,816명
 - 시네필 903명

※ 단순 참가(방문)자 및 프레스 제외

※ 배지 등록자 기준



II. 종합 결산

1. 영화제 전역에 역대급 관객 물이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관객 수를 기록했다.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만 명 늘어난 17만 5,889명이 공식 선정작 328편(커뮤니티비프 87편 포함)을 관람하였다. 10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 다양한 이벤트와 3년 만에 재개된 포럼 비프에는 무려 6만 3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굿즈 또한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2. 경쟁부문 신설과 함께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국제영화제는 30회를 맞아 본격적인 경쟁부문 신설과 함께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을 선정했다. 영화의전당 하늘극장에서 진행된 경쟁 포토콜 세리머니는 매년 수많은 인파를 모으며 부산국제영화제만의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나홍진 심사위원장과 양가휘, 난디타 다스, 마르지에 메쉬키니, 코고나다, 율리아 에비나 바하라, 한효주로 구성된 경쟁 심사위원단의 부산 어워드 5개 부문의 심사 결과는 9월 26일 저녁 7시 폐막식을 통해 공개되며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디자인에 SWNA가 협력하여 제작된 트로피가 주어질 예정이다. 부산 어워드 트로피는 유려한 곡선과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표면을 통해 '아시아의 시선으로 아시아영화를 바라보다'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한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까지 고스란히 비추는 트로피에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해 온 그간의 여정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냈다.

3. 역대급 게스트와 뜨거운 관객 호응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한 자파르 파나히 감독, 까멜리아상의 실비아 창 감독, 한국영화공로상의 정지영 감독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방문한 마이클 만, 마르코 벨로키오, 기에르모 델 토로, 셴 베이커, 매기 강 감독과 한국의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 그리고 줄리엣 비노쉬, 양조위, 밀라 요보비치, 서기, 니시지마 히데토시 배우 그리고 깜짝 게스트였던 블랙핑크의 리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의 역대급 게스트와 함께 관객이 행복한 영화제였다.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특히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과 신예은 배우는 개막식 무대 스크린에 등장하는 순간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온·오프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4. 신규 행사와 함께 더욱 다채로워진 이벤트!

국내외 명사의 영화 이야기부터 깊이 있는 강연까지 담긴 까르뜨 블랑슈와 씨네 클래스를 신설하고 커뮤니티비프를 영화의전당으로 가져온 야외 이벤트까지, 323회의 GV(게스트와의 만남)와 67회의 이벤트가 영화제 중후반부까지 이어져 열흘 내내 관객들이 영화제의 모든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병헌, 손예진, 김유정, 니노미야 카즈나리 배우의 액터스 하우스, 봉준호 감독, 손석희 언론인, 은희경 작가, 강동원 배우, 매기 강 감독이 참가한 까르뜨 블랑슈, 폴 W. S. 앤더슨, 코고나다, 알렉산드레 & 조르지 코베리제 감독과 라 프란시스 후이 큐레이터의 씨네 클래스를 포함해 오픈 토크, 야외무대인사, 아주담담,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 토크까지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화창한 날씨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5. 포럼 비프, '다시,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

3년 만에 재개한 포럼 비프는 '다시,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9개 세션을 통해 산업, 정책, 비평, 기술, 교육을 아우르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영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했다. 국제 공동제작, 한국영화의 지속 가능성, 시각문화의 미래 등 현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주제와 함께 한국과 아시아 영화산업에 대한 다층적이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졌다.

6. 관객과 게스트를 위한 편의 서비스 증대

부산국제영화제가 누구나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를 지향하여 전개해온 컬처 프로젝트 '피트(p!tt)'는 제30회를 맞아 영화제 30년의 기록을 우표로 남긴 우체국과 30년 여정을 함께 해온 시네필을 위해 만든 컬렉션을 선보이는 아이엠티튜디오와의 뜻깊은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영화제의 역사적 의미와 대중적 가치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객의 불거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 국문 데일리는 작년보다 2회 늘어난 총 8회를 발행하였고, 영문 데일리는 매체를 추가하여 온·오프라인 포함 총 21회



발행하였다. 영화제를 찾은 모든 이의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B푸드라운지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게스트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 운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의료지원을 통해 운영된 의료부스와 작년에 이어 운영한 게스트 셔틀까지 관객과 게스트 모두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마련했다.

7.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커뮤니티비프, 인기 고공행진

커뮤니티비프가 올해 8 번째를 맞아 높은 좌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다양한 협업으로 초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극장을 찾았고, 관객이 직접 기획한 '리퀘스트시네마', 블라인드 상영, 실시간 코멘터리, 결말 토론 상영 등 독창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상영 후 해외 감독과의 GV, 라이브 드로잉, 필름콘서트, 시 낭송회, 굿즈 선물 등 풍성한 이벤트가 이어졌으며, 광장 토크·애장품 기부 행사와 영화퀴즈대회도 호응을 얻었다.

8. 동네방네비프, 부산 전역을 영화제 행사장으로

올해 5주년을 맞은 동네방네비프는 '바람길(Wind Path)'을 콘셉트로 부산 안팎 15개 장소에서 39회 상영을 열어 영화와 예술을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해군부대, 어린이병원, 경마장, 공항, 지하철 등 특별한 공간에서 상영이 이루어졌고, 청년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기획이 더해졌다. 도시를 재발견하는 자유로운 영화 축제로 주목받았으며, '마을영화만들기'에서는 7개 팀이 단편 7편과 메이킹 다큐 3편을 제작해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9.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혁신적 프로그램과 역대 최대 규모로 새 역사를 쓰다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이 제20회를 맞아 새롭게 도약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마켓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0,006명의 참가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선보인 3개의 혁신적 신규 프로그램은 미래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ACFM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54개국 1,222개사가 참여한 이번 성과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ACFM이 글로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Ⅲ. 사업별 결산

ⅰ. 2025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1.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요약

- 기간: 9월 7일(일) - 9월 26일(금) (20일간)
- 주요 참가자: 교수진 3명, 강사진 8명, 펠로우 24명, 졸업생 3명, 다큐팀 3명, JIMFA 장학생 4명
- 참가국: 17개국/지역(네팔, 대만,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르메니아, 이란, 인도,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홍콩(중국))
- 교수진
 - 교장: 김지운(한국/감독)
 - 연출 멘토: 매티 도(미국, 라오스/감독)
 - 촬영 멘토: 박정훈(한국/촬영감독)

2. 주요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바구니> | DCP | 6min | Color
 - <정류장> | DCP | 7min | Color
 - <사랑해> | DCP | 5min | Color
 - <이중매듭> | DCP | 10min | Color
 - <삼발떡볶이> | DCP | 6min | Color
 - <노인과 무덤> | DCP | 6min | Color
 -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 DCP | 8min | Color
 - <하나의 교환> | DCP | 10min | Color
- ② 클리닉 및 멘토링
 - 시나리오 개발(이원석 감독)
 - 연출멘토 온라인 멘토링(매티 도 감독)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 카메라 핸드온 트레이닝(박정훈 촬영감독)
- 데이터매니저 장비 트레이닝(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프로덕션 디자인 클리닉(김진영 미술감독)
- 편집 클리닉(최민영 편집기사)
- 영화음악 클리닉(한재권 영화음악감독)
- 사운드 클리닉(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DI 클리닉(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시나리오 1:1 멘토링(이원석 감독)

③ 강의

- 촬영 강의(박정훈 촬영감독)
- 편집 강의(최민영 편집기사)
- DI 강의(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연기 연출 강의(매티 도 감독)
- 프로덕션 디자인 강의(김진영 미술감독)
- 사운드 강의(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 폴리 강의(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영화음악 강의(한재권 영화음악감독)
- 시나리오 강의(이원석 감독)

④ 교수진 작품시사

- 김지운 감독 | <달콤한 인생>(2005)
- 매티 도 감독 | <긴 산책>(2019), <잠자는 숲속의 공주>(2025)
- 박정훈 촬영감독 | <악녀>(2017)

⑤ 교장 마스터클래스

- 김지운 감독 마스터클래스

⑥ MPA-BAFA 영화 워크숍: Bridge to Hollywood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 특강: 칼로스 살단하(Carlos SALDANHA)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MPA)와 함께 프로젝트 피칭 워크숍 진행
- 프로젝트 피칭 워크숍 심사위원: 스티븐 제너(Stephen JENNER) (Vice President, Communications, MPA APAC), 칼로스 살단하(Carlos SALDANHA) (Director), 김형균(Thomas KIM) (Director)

⑦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네트워크

- 졸업생 네트워킹 디너 진행

3. 장학 프로그램 수상 결과

① CHANEL X BAFA Promising Filmmaker 어워드

- 수상자: 아나스타시야 포노마료바(카자흐스탄)
- 수상자: 니비타 무랄리크리슈나(인도)
- 특별언급 수상자: 장 옌청(중국)

② MPA 어워드

- 수상자(1등): 아미르 자르가라(이란)
- 수상자(2등): 프라바트 구룽(네팔)

③ C-47 POST STUDIO Editing 어워드

- 수상자: 아나히트 바기냔(아르메니아)



ii. 포럼 비프

2025 포럼 비프는 지식영화연구소 특별기획으로 “다시,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산영상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 속에서 아시아영화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OTT 플랫폼과 아시아영화계의 공존 문제, 국제공동제작의 협력과 가능성, 한국영화 30년의 성취와 위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감독, 제작자, 배급 관계자, 학계와 평론가들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고민과 학술적 담론이 교차하는 균형 잡힌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도 이어졌다. 3년 만에 재개된 포럼 비프는 소수 전문가 중심의 담론장을 넘어 아시아영화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1. 포럼 비프 요약

- 기간: 9월 18일(목) - 9월 21일(일)
- 장소: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 참가 규모
 - 총 4개 섹션 내 9개 세션 개최
 - 공동 주최 기관: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산영상위원회
 - 섹션 A: 아시아영화 주제 2개 세션(주최: 부산국제영화제)
 - 섹션 B: 한국영화 주제 2개 세션(주최: 부산국제영화제)
 - 섹션 C: 신기술과 영화교육 주제 3개 세션
(공동 주최: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 섹션 D: 한국영화계 연대 단체 후원 2개 세션
(주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영화제정책모임)
- 패널 수: 74명
- 관객 수: 725명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2.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 섹션A.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 아시아영화, 국제공동제작의 새 챕터를 열다
 -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삼키는가
- 섹션B. 한국영화를 구하라
 - 1996 플래시백: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 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
- 섹션C. 시네마의 미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 리부팅 한국영화
 -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
 -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
- 섹션D: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
 -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
 - 멸종위기영화 K-무비,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



iii. 커뮤니티비프

2025 커뮤니티비프는 관객참여형 축제로, 대표 프로그램인 '리퀘스트시네마'는 물론 '마스터톡', '블라인드시네마', '취생몽사'가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며 관객과 함께 만드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마케터센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여성감독네트워크, 부산청년 커뮤니티, 부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관객 물이에 성공했다. 실험과 교류의 장을 지향하는 커뮤니티비프는 기관·단체와 함께 관객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과의 접점을 강화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는 '리퀘스트시네마'에 5,268명이 참여해 다시 보고 싶은 역대 상영작을 신청했다. 그 결과 <형사 Duelist>, <무뢰한>, <초인>, <바닷마을 다이어리>, <우리들>,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등 총 13편을 상영했다. 나아가 라이브 드로잉, 필름콘서트, 시 낭송회, 굿즈 선물 등 영화 같은 순간이 이어져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인 외에도 바밍타이거 등의 뮤지션, 과학 커뮤니케이터, 베스트셀러 작가 등이 참여해 흥미를 더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1시간 가까이 팬 미팅과 친필 사인회가 이어지는 대성황을 이뤘다. 친필 저서는 영화 굿즈샵 '금지옥엽'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부산중구청의 지원으로 한국영화감독 8인이 중구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전야제와 시민영화촬영체험 등 커비로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을 활기로 가득 채웠다. 추계예술대학교 융합예술대학 '비메이트'가 홍보와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국내외 고교와 대학에서도 연구와 모니터링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영화 축제 커뮤니티비프는 관객과 게스트가 추억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응원하며, 개성과 방향성을 지닌 영화제로 성장했다.

1. 커뮤니티비프 요약

- 기간: 9월 18일(목) - 21일(일)
-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남포동 비프광장

2.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 프로그램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 작품 수: 87편 (장편 38편, 단편 39편, 야외상영 10편)
- 영화 상영: 43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30회 / 공연 3회 / 토크 6회 / 코멘터리 상영 3회
- 게스트 수: 약 330여명
- 관람자 수: 5,636명

○ 커비로드(남포동 비프광장 및 비프거리 이벤트 프로그램)

- 작품 수: 10편(장편 4편, 단편 6편)
- 야외 상영: 8회
- 야외 이벤트: 23회(공연 5회, 토크 6회, 게스트와의 만남 6회, 무대인사 6회)
- 행사: 3회(전야제, 개막식 중계, 남포피날레)
- 체험존: 12개 부스 운영
- 참가규모: 17,348명

○ 주요 내용

- 상영 프로그램: 리퀘스트시네마, 커비컬렉션, 올데이시네마, 블라인드시네마, 마스터톡, 취생몽사, 한예종 영상원 30주년 특별전 등
- 야외 프로그램: 야외 상영 및 이벤트 (공연, 토크, GV, 무대인사), 전야제, 남포피날레 등
- 체험 프로그램: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시민영화촬영체험존,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 움직임의 착각! 스톱모션 아틀리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당신의 고민을 삽니다, 부산청년종합커뮤니티: AI 움직이는 사진 만들기, 히트맨 2: 사격부스), 신명: 메모리 게임, 빅픽처: 랜덤 뽑기 가차샵, 식객: 영화 속 미식 여행, DEMON 돌스터: DIY 인형 만들기, 전통화랑무예궁협회&울산무예총연합회: 대결!!! 화랑 결투장 & 화랑 국궁체험



iv. 동네방네비프

동네방네비프는 부산의 관광명소와 생활거점에서 개최되는 지역친화적 행사이다. 올해 5년 차인 2025 동네방네비프는 '바람길(Wind Path)'을 주제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영화제로 향할 수 있도록 15 갈래의 길을 내고 영화제 기간 내내 진행했다. 부산 안팎의 장소가 지닌 이야기를 들으며 협업 기관과 함께 각 장소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든 것은 올해의 돋보이는 성과이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군작전사령부와 관함식을 함께하고, 최초로 부울경 지역까지 진출하여 양산시 부산대 어린이병원에서 한국소아암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위해 마술쇼와 라이브 더빙을 진행했다. 개통 40주년의 부산교통공사와는 전포역에서 개막식을 생중계하고 '청춘'을 주제로 한 단편을 상영하며 관객도 청춘의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별일'의 전시를 연계했다.

2025 동네방네비프는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퇴마록> 신드롬의 주역인 작가, 감독, 성우들은 야외에서 두 차례나 팬들과 진지하게 장시간 소통했고, 낙조분수에서는 <사랑의 하츠피>이 분수쇼와 어우러진 빛의 장관을 펼쳤다. 김해국제공항 면세구역, 전포카페 거리에서는 단편 애니메이션도 각기 다른 주제로 10편씩 상영했다.

고리스포츠문화센터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168 더 데크 등 3개 장소에서 가치봄상영과 수어상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었으며,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받은 단편영화감독들과 부산의 열기를 서울까지 이어갔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 공동체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기록하는 '마을영화만들기'로 올해 7개 팀이 도전하여 단편 7편, 메이킹 다큐멘터리 3편이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영되는 성과를 남겼다.

1. 동네방네비프 요약

- 기간: 9월 17일(수) - 9월 26일(금), 10일간
- 장소: 총 15곳(부산시 13곳, 경상남도 양산시 1곳, 서울시 1곳)
 -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BNK부산은행)
 -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한국수력원자력)
 - 동구 168 더 데크(동구청)
 -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면세구역(김해국제공항)
 - 사하구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한국관광공사)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 강서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한국마사회)
- 영도구 모모스커피 영도 로스터리 앤 커피바(모모스커피, 로컬바이로컬)
-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수영구청)
- 중구 비프광장 야외무대(중구청)
- 강서구 에코델타시티(한국수자원공사)
- 부산진구 전포역 부산2호선(부산교통공사)
- 영도구 태종대 자동차극장(부산관광공사)
- 남구 해군작전사령부(대한민국 해군)
-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한국소아암재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대한민국 국회)

2.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총 36편(장편 15, 단편 20, 시리즈 편집본 1)
- 영화 상영: 39회(뮤음상영은 1회로 산정)
- GV, 토크 및 공연 등 이벤트: 17회

○ 참가규모: 7,848명

3. 마을영화만들기

○ 참가규모: 7개 팀, 팀 당 3~10명 ※ 멘토감독 7명과 메이킹다큐멘터리 감독 3명 제외

○ 기간: 7월 - 9월, 약 3개월

○ 상영: 9월 18일(목) 2회, 메가박스 부산극장 2관, 참가자와 멘토 감독들의 GV 진행

○ 주관: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 협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문화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 프로그램

- 작품 수: 단편 7편, 메이킹 다큐멘터리 3편 총 10편 (부산국제영화제 4편, 영화의전당 6편)



v. 202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202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이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번 행사는 총 방문 인원 30,00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수치로, ACFM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마켓 참가 규모 또한 54개국 1,222개사 3,024명이 등록하며 전년 대비 14.37%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제20회를 맞은 ACFM은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혁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다루는 '이노아시아(InnoAsia)', 아시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는 'The A', 그리고 다큐멘터리 생태계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는 '독스퀘어(Doc Square)'가 그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미래 콘텐츠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를 포커스 국가로 한 프로듀서허브에는 25개국 154명의 현역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활발한 국제 네트워킹을 펼쳤으며, 31개국 289개사가 전시부스를 열어 글로벌 콘텐츠 마켓으로서의 다양성과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1.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30,006명(전시장 방문 22,122명 / 산업 이벤트(87개) 참가 7,884명)
- 마켓배지: 54개국, 1,222개사, 3,024명
- 전시자: 31개국, 289개사, 113개 부스
 - 총 16개국 국가관 개설(인도, 인도네시아 첫 국가관 개설)
 -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세일즈사 및 콘텐츠 기관으로 참가
 - 신규 참가 38개사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스크리닝: 총 18개국, 51개사, 179작품(마켓 프리미어 24편)
 - 영화제 공식 선정작: 총 97편

2. 마켓콘퍼런스 및 이벤트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 총 87개 행사 7,884명 참가
- 마켓콘퍼런스(파트너세션): 12개
- The A서밋: 2개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3개
- 부산스토리마켓: 4개
- 네트워킹 및 리셉션: 8개

3. The A

- The A Report: 17개국 영화산업리포트 발간, 페이지뷰: 713회
- The A Summit: AFAN Spotlight, Asian Film Market Leaders' Summit 등 2개

4. 아시아영화펀드

- 아시아영화펀드 4개 펀드(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공동제작지원펀드) 총 15편 지원
- 후반작업지원펀드 4편, AND펀드 2편 부산국제영화제 월드프리미어 상영
-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지원작 APM 수상:
 - <검은 별의 천사> APM 부산상
 -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콩팍스튜디오상, 노르웨이사우스필름펀드상
- 신설 ACF공동제작지원펀드 by Hylife 지원작: 양효주 감독 <반월>

5. 아시아프로젝트마켓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선정작 15개국 30편 선정
- 비즈니스미팅: 총 726건
- 총 참가사 수: 127개사
- APM 어워드 13개 부문, 11편 수상 (신규 어워드 2개)



○ 제28회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어워드 수상 결과

어워드명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국가/지역
APM 부산상	검은 별의 천사	크리스틴 하루투니안	크리스틴 하루투니안 맥스웰 쉬바르츠	아르메니아/미국
원쿨 어워드	장례행진곡	후지타 나오야	후지타 카나코 저우아이켄 저우린 시이나 야스시	일본/중국
CJ ENM 어워드	고치	윤은경	곽용수	한국
VIPO 상	울다 지치면 깨워줘	라우 콕 루이	소이 청 스테파노 첸티니 왕큐순	말레이시아/홍콩, 중국/이탈리아/대만
홍해필름펀드상	바이 마이 카	장야오위안	구니자네 미즈에 이치야마 쇼조 모줄린	일본/중국
아르떼키노상	여성의 교회	다린 살람	디마 아자르 아야 자르다네	요르단
송원 어워드	댄스 댄스 레볼루션	최하나	안보영	한국
KB 어워드	물의 도착	조희영	박세진	한국/일본
칸타나 어워드 – 픽쳐	젓소 001 의 기적	응우옌 팜 타인 닷	응우옌 우 티 뜨영 비	베트남
칸타나 어워드 – 사운드	고치	윤은경	곽용수	한국
콩깍싹스튜디오상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브 바스웰	존 토레스 줄스 카타낙 단젠 산토스 카타낙	필리핀
TAICCA 상	길동	박이웅	안병래	한국



어워드명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국가/지역
노르웨이사우스 필름펀드상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브 바스웰	존 토레스 줄스 카타낙 단젠 산토스 카타낙	필리핀

6. 부산스토리마켓

- 비즈니스미팅: 총 703건
- 총 참가사 수: 145개사
- 대만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지속
- 국내외 유관 기관 참가(대만콘텐츠진흥원, 일본영상진흥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 더그림엔터테인먼트, 인북 등 전시부스 참가

7. 이노아시아

- 콘퍼런스: ACFM자체기획 6개(공동주최 1개 포함), 파트너 세션 5개
- 부트캠프: 2개 세션
- WIP쇼케이스: 4개사 8편
- 이노스테이지 & 라운지
 - 행사횟수: 19회(오프닝런천, 해피아워 포함)
 - 참관객 수: 650명

8. 프로듀서허브

- 참가자: 25개국, 154명
- 올해의 국가: 캐나다
- 10개국 13개 기관과 파트너십 협약
- 9개 세션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9. 독스퀘어

- 7개 세션
- WIP 상영작 13편
- 참관객 수: 273명

10. 플랫폼부산

- 참가자: 23개국, 148명
- 8개국 10기관 파트너십 협약
- 9개 세션



IV. 시상

1. KB 비전 관객상

[수상작] <판쿠의 시간> | 레자 라하디안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2.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말리카> | 나탈리아 유바로바 | 카자흐스탄, 몰도바, 아일랜드

심사평: 가족 간의 유대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예민하고 여린 시절을, 시적인 언어와 빛을 발하는 섬세함, 깊은 정서적 울림, 그리고 수려한 영상미로 담아냈습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디아나 아쉬모바(카자흐스탄/프로듀서)

땡리엔(말레이시아/프로듀서)

백재호(한국/(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3.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판쿠의 시간> | 레자 라하디안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심사평: <판쿠의 시간>은 IMF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여성의 삶을 그립니다. 작품은 주인공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가난의 미화나 단순한 비극으로 환원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드러냅니다. 전통적 서사 안에서 삶의 절망과 희망을 고전적 미학과 서정적 감수성으로 담아냈습니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김미현(한국/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나렌드라 반다베(인도/ABP뉴스 기자)

소피아 페레로 카레가(아르헨티나/영화평론가)

4. 방글라데시 7월기념상

[수상작] <쿠락> | 에르케 주마크마토바, 에밀 아타겔디예프 |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세르비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사평: 이 작품은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며, 폭력과 억압의 구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시위 현장의 기록에서 두 젊은 여성의 내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영화적 구성은 인권 문제를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로 체감하게 합니다. 깊이 있는 고민과 예술적 감각으로, 이 영화는 인권 영화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환기시켜 줍니다.

5. 비슈케크국제영화제 – 중앙아시아영화상

[수상작] <판쿠의 시간> | 레자 라하디안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심사평: 저희는 <판쿠의 시간>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작품은 놀라운 선명함과 깊은 정서적 울림으로, 소련 붕괴 이후 키르기스스탄 역사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를 그립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인, 생계의 버팀목, 보호자로서 가정을 지켜냈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떠받쳤습니다. <판쿠의 시간>은 이러한 투쟁을 섬세한 감수성과 상징적인 힘으로 포착합니다.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를 넘어, 불확실한 시대를 견뎌낸 어머니들의 힘과 희생,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헌사입니다. 국경을 넘어 인간의 인내와 전 세계 여성들의 용기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예술적 성취와 깊은 인간적 울림으로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6. 얼터너티브유니버스 – 차세대영화인상

[수상작] <판쿠의 시간> | 레자 라하디안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심사평: <판쿠의 시간>은 오늘날 보기 드문 시적이고 영화적인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작품은 진실한 사랑이 부재한 고단한 삶의 여정을 그리면서도,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7. Hylife 비전상

[수상작 1] <타이가> | 안솔 차우한 | 일본

심사평: 이 작품은 진심 어린 섬세한 묘사로 귀여운 정체성과 가족 그리고 소속감을 그려내며, 배척을 딛고 연대를 찾아 나서는 한 인물의 여정을 담아냅니다.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동리에 선 이들의 조용한 힘을 기리고, 편견에 맞서 싸웁니다.

[수상작 2] <어느 겨울 밤> | 산주 수렌드란 | 인도

심사평: 이 영화는 낯선 도시에서 겪는 일상의 고단함과 불안정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음악, 작은 기쁨을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일상의 리얼리즘 속에서 삶의 따스함과 연대를 감각적으로 포착한 이 작품에,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상을 수여합니다.

8. 인도국제영화제 - 비전 아시아상

[수상작] <흑토끼 백토끼> | 샤흐람 모크리 |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심사평: '인도국제영화제 - 비전 아시아상'의 수상작은 드라마 장르의 독립영화, <흑토끼 백토끼>입니다. 이 작품은 이중성, 운명, 도덕적 선택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분절된 서사와 교차되는 시점을 통해 상징적인 토끼에 묶인 두 인물을 빛과 어둠의 존재로 형상화합니다. 초현실적인 영상미와 감정적 사실주의가 어우러져 정체성과 균형에 대해 질문하는 꿈결 같은 톤을 빚어내는 동시에 사랑과 상실, 희망과 절망을 사유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선택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결과라는 섬세한 운명을 다층적으로 비춰냅니다.

9. 송원 비전상

[수상작] <모모의 모양> | 트리베니 라이 | 인도, 한국

심사평: 일상의 작은 사물들과 관계들을 통해 존재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전하는 작품입니다. 탁월한 섬세함과 진정성으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뤄낸 작품으로, 감독님께 따뜻한 축하와 깊은 격려를 전합니다.

10. 타이베이영상위원회상

[수상작] <모모의 모양> | 트리베니 라이 | 인도, 한국

심사평: 트리베니 라이의 데뷔작은 전통적인 인도 마을을 재현하지 않고, 비슈누 또한 전통적인 인도 여성을 대표하지 않기에 더욱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작품은 그녀를 중심으로 언니와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을 능숙하게 엮어내며, 인도의 가부장제와 여성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현실을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빛과 그림자를 섬세하게 활용하여 라이 감독 특유의 세밀한 해석과 매력적인 영상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1. 비전오브지식어워드

[수상작] <쿠락> | 에르케 주마크마토바, 에밀 아타젤디에프 |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세르비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사평: 이 영화는 독창적인 영화적 언어를 통해 여성들의 삶과 현실을 한 편의 강렬한 서사로 엮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와 파편화된 경험들을 하나의 직조물처럼 직관적이고 힘 있게 연결하면서,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가능성을 확장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12.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배우상-여자] 이승연 | <산양들> | 한국

심사평: 출품된 작품의 모든 후보 배우분들의 역량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안정적이어서, 심사를 하는데 한 명의 신인 배우를 고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문제아로 낙인찍힌 입시를 앞둔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담을 신선한 호흡으로 담은 작품 <산양들>의 신인 여우들 모두는 비전 섹션에 나무랄 데 없는 각자의 개성 있는 연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출연진 모두에게 주고 싶었습니다만, 한 명의 배우를 선택해야 했기에 장면마다 생동감 있는 연기와 창의적으로 배역을 해석한 이승연 배우에게 '올해의 배우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의 배우상-남자] 문우진 | <아코디언 도어> | 한국

심사평: 문우진 배우는 자연스럽고 잔잔하며, 담백한 연기로 '지수'라는 인물을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내면과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현실주의적인 매너로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이정은(한국/배우)

유태오(한국/배우)



13.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수상작 1] <철들 무렵> | 정승오 | 한국

[수상작 2] <흐르는 여정> | 김진유 | 한국

심사평: 열두 편의 영화가 저마다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고심이 깊었습니다. 배우보다 인물이 남고, 사건보다 이야기가 기억되는 작품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무엇보다 끝까지 독심을 놓지 않은 동료 감독의 용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심사위원

김정호(한국/감독)

남연우(한국/감독)

서유민(한국/감독)

14. CGV상

[수상작] <단잠> | 이광국 | 한국

심사평: 이광국 감독의 <단잠>은 죽음에 대해 '왜'라는 질문 대신, 사랑하는 이의 부재 속에 헤매는 모녀의 모습을 담담히 비춘 작품입니다.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비춘 연출은 기존의 구조적 실험에서, 정서적 깊이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겨진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을 끝까지 응시하고 언젠가 찾아올 평온한 단잠을 섬세히 포착해 그려낸 <단잠>을 'CGV상'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15.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흐르는 여정> | 김진유 | 한국

심사평: 김진유 감독의 <흐르는 여정>은 '좋은 죽음'과 '좋은 삶'을 동시에 사유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을 결국 해내는 작품입니다. 남은 삶을 정리 중인 사람의 옆에 묵묵히 함께 하던 카메라는 슬픔에 빠진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동시에 고민합니다. 외로운 죽음과 상실의 우울이 넘쳐 나는 시기, 이 사려 깊은 태도가 관객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KBS독립영화상 심사위원



김보년(한국/프로그래머, 평론가)

노덕(한국/감독)

안국진(한국/감독)

16. 크리틱b상

[수상작] <관찰자의 일지> | 임정환 | 한국

심사평: 줄곧 관찰해 온 낯선 도시의 '여행자'를 외피로 삼지만, 분열하고 증식하는 이야기와 캐릭터의 힘이 유연합니다. 초기 영화를 일깨우는 운동은 3부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원을 그리며 다층적인 리듬을 만들고, 관찰자가 된 우리는 폐쇄 회로를 방랑하며 색다른 풍경을 마주합니다. 새로운 '관찰자의 일지'를 써 내려갈 임정환 감독의 다음 여행지가 궁금해집니다.

크리틱b상 심사위원

박인호(한국/평론가)

이동윤(한국/평론가)

이하늘(한국/평론가)

17. 씨네21상

[수상작] <아코디언 도어> | 손경수 | 한국

심사평: <아코디언 도어>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 한 소년의 치열한 자아 찾기 여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장르적 설정을 경유해 평범함과 비범함의 경계를 탐구하는 이 작품은 때로는 긴장감을 유발하며, 때로는 성찰의 여정을 통한 깊은 울림을 주기에 '씨네21상'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씨네21상 심사위원

장영엽(한국/대표이사)

송형국(한국/기자, 평론가)

오진우(한국/평론가)

18. 송원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철들 무렵> | 정승오 | 한국

심사평: <철들 무렵>은 한국 가족 구조의 특이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한 자세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 세대의 특수성을 다층적으로 고려하면서 각자를 삶의 미래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특기할 만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를 오가는 이 영화의 방식은 음악과 더불어 재치 있는 리듬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이상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부딪히는 인물들을 비추는 방식을 통해 지금 여기의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기에 이 영화를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19.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양귀비와 나> | 비벡 차우두리 | 인도, 프랑스

심사평: 이 작품은 불합리한 사회에 타협하려는 가족과 부조리에 맞서는 주인공의 갈등을 통해, 생계와 정의 사이의 딜레마를 객관적이고 현장감 있게 보여줍니다. 또한 카메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유머를 포착해 인간적인 친근함까지 더합니다. 결국 영화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지만, 꺾이지 않는 투쟁의 의지를 통해 관객에게 삶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단순 기록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며 무더진 사회 문제를 다시 조명하기에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 다큐멘터리 관객상

[수상작]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 왕민철 | 한국

21.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하나코리아> | 프레드릭 쉴베르 | 덴마크, 한국